

한국 낙농은 희망이 있다



낙농은 국민 보건 식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완벽에 가까운 산업입니다. 일부 채식론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듯, 낙농은 산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민 체위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국가적 차원의 보호 육성 대상임이 분명합니다.

영국의 처칠경은 “일찍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는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우유를 먹이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학교 우유급식도 늘어나야함을 강조하기에 충분한 단어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리 길지 않은 낙농역사에서 원유의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최근의 낙농산업은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낙농은 불과 40여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낙농은 지속적으로 발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측면만 보면 낙농산업은 온실속에 화초처럼 보호만 받아온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농업분야에서는 일찍이 시장개방에 문을 열어준지 오래입니다. 각종 협상 때마다 이면에는 낙농산업은 시장개방의 최선봉에 서곤 했습니다. UR 때 그랬고 DDA, FTA 때도 가장 민감도가 높은 수

입개방품목이 낙농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농업 국가도 아니요 낙농 축산 국가는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도 국제 경쟁력 이야기만 나오면 뉴질랜드나 호주, 미국 등 축산대국과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보호 육성받는 산업 취급을 받으면서도 말이다.



박충남 · 본회 부회장
보림목장대표

인류가 소를 가축화 한 것은 정확치는 않지만 기원전 6000~8000년 이라고 한다. 그 이후 아시아 서부지역의 벽화에서 일부 소의 그림이 있고 젖을 짜는 모습이 섬각으로 된 것이 있다고 하니 낙농의 역사는 인류역사와 뿌리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성경에도 가나안 땅에 기름진 땅에 젖과 꿀이 흐르다 라는 대목을 보더라도 이미 기원전 3500년쯤에 이미 낙농은 중요한 식품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기원전 400년 히포크라테스는 우유의 영양적 가치를 기술하였으며 아리스토텔은 우유의 성분은 물, 지방, 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저술했으며

(시저왕)시대에는 지금의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지역에 젓소가 많이 사육되었다고 하고 유제품에 대한 기술도 많이 보급되어 왔다는 기록이 있다한다.

우리나라에서 소를 가축으로 사육하고 식용이나 재물로 이용하였다는 설은 단군조선 이전이라고 보고 있다한다 삼국유사 에서는 왕에게 소젖을 바쳤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이전에 왕실이나 귀족사회에서는 우유를 이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나라에서 젓소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02년경 프랑스인 shotter씨가 젓소 20두를 도입하여 현 신촌역 부근에 목장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후 젓소사육이 계속 증가하여 약 2000두 정도가 사육되었다는 문헌이 있다.

하지만 혼란기를 거치면서 그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의 젓소는 300여두도 안되는 그야말로 산업으로써 가치와 모양을 갖추지 못하는 때도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젓소 도입계획이 정책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낙농의 발전기들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후 10년동안 약 7000여두의 holstein이 도입되면서 오늘날 한국낙농의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된 품종은 홀스타인종이었다.

1960년대는 국내에서도 서울우유가 시유를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남양유업이나 한국야쿠르트 등에서도 발효유를 비롯한 유제품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한국낙농은 산업으로써의 가치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뿐만아니라 1963년에는 미흡하지만 낙농진흥법이 제정되었고 1980년대에는 지금은 통합되어버린 추억만 남은 축협중앙회도 태동을 한다 그리고 한국 축산업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된 가축의 개량기관도 1966년도에 홀스타인협회가 조직되어 젓소의 혈통등록 등 종축의 개량사업을 실시하였고 1969년에는 종축개량 협회로 통합되면서 현재까지 젓소의 등록, 혈통관리 심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낙농 한분야만 보더라도 BC 150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선진 낙농 국가에 비하면 아직도 개선해야 할점이 너무 많다.

아마 우리나라의 축산 여건이 대부분 조사료를 생산 할 수 있는 여건이 불리하고 조사료의 품질 또한 소화가 잘안되는 벵짚위주의 사양관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 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축의 개량이나 혈통관리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농가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70년대의 젓소의 사육두수는 24,000두에서 현재의 450,000두로 사육호수는 현재 약 8000호로 사육두수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농가수도 최근 많은 변화가 있지만 대부분 전업농 규모로 급변하는 추세이다.

국민 1인당 우유소비도 향후 10년이내에 70kg 이상까지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쌀소비를 우유소비가 앞지를 전망이다.

하지만 주변의 환경은 그리 만만치 않다. 지구 온난화를 마치고 축산이 주도하는 듯한 내용을 발표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식량자원의 대량소비가 축산물 생산에서 원인을 찾는 부류도 생겨나고 그야말로 순순히 발전하게 놔두지 않겠다는 속셈



처럼 보인다.

그래도 인류가 섭취하는 음식 중 가장 고르게 영양을 갖추고 있는 음식이 우유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소비자가 찾는 소비자 중심의 시장접근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저지방 고단백 HACCP를 비롯하여 더욱 위생적인 자연에 가까운 우유를 생산하는 것은 어쩌면 21세기 낙농가의 몫인지도 모른다.

미래의 한국낙농가는 어떤 모습일까 GNP 20,000\$ 시대의 한국 경제 이에 걸맞는 낙농가의 모습은 어떻게? 겨우 50%에 달하는 젖소의 산유능력 검정 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은 되어야 하고 두당 유량은 10,000kg 대에 이르렀지만 경제수명을 높여 경제산차를 3.5산이상 목표로 체형위주의 개량 목표를 세워 경제 형질이 나쁜 개체의 도태와 우수 형질의 선발은 필수 과정이 아닐까요?

이렇듯 낙농산업이 산업으로써의 가치가 생길려면 그 산업에 종사하는 인적 구성원의 사고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현재에 만족하면 희망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한국낙농은 희망이 보인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홀스타인 품평회가 한국낙농의 희망을 대변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신선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으며, 이런모습은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낙농가에게는 더 많은 우유 생산을 보장 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것 뿐만 아니라 젖소에게는 단순한 경제 동물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 하는 계기가 된다 고른 체형을 갖춘 젖소가 생산 뿐만 아니라 경제수명을 오래유지 할 수 있고 낙농가에게도 일에 대한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 되고 있다.

홀스타인 품평회에 참여 하는 낙농가치고 소

에게 홀대 하는 사람은 없다 라는이야기는 이미 낙농가들 사이에는 다 아는 이야기 이다

아름다운소 생산성이 높은소 이러한 소를 기르고 싶은 생각은 누구 에게나 있지만 그저 되는 일은 아니다 절차와 원칙을 무시 하고는 좋은 낙농가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낙농을 하기 위해 낙농을 전공 하고 낙농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낙농가가 전문적인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생산 현장의 경험이나 가끔 세미나를 통해 정보를 얻는 정도 이다 그러니 전국의 아름답고 생산성이 높은 우수한 젖소와 각종기자재 그리고 낙농 정보를 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홀스타인품평회야 말로낙농가라면 절호의 기회임이 분명 하다 하겠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한다 젖소의 등록과 심사 그리고 개량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종축개량협회를 통해 알아보고 반드시 목장에 접목하는 지혜가 필요 하다 뿐만 아니라 젖소의 생산되어지는 우유를 직접 분석하여 개체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도 앞으로의 낙농에 있어 필수 항목중의 하나 임이 분명 하다. 그렇다면 젖소의 산유능력 검정을 받는 것 또한 이제는 간과해서는 안되는 일이 되었고 정부의 낙농에 대한 미래 목표 에도 분명히 이를 명시 하고 있다.

위기는 기회와 공존한다 분명하게 국 내외 농업정세나 소비자는 변화를 요구 하고 있다 이를 위기라고만 느끼면 위기가 온 것이다 하지만 이걸 기회로 바꾸겠다는 생각 이라면 좋은 찬스가 될 것이다.

제 2의 낙농 혁명을 낙농가 스스로 일으키는 기회가 오기를 희망해본다.